전남도, 첨단소재 4500억 투자유치

롯데케미칼 자회사 삼박엘에프티 율촌1산단에 공장·수소 소재 사업 신규 일자리 500여개 창출 전망

전남도가 미래 성장 동력으로 육성 중인 첨단소재, 이차전지 등 신산업 분야 대규모 투자유치를 실현,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전남도는 지난 6일 도청 VIP실에서 롯데케미칼㈜과 그 자회사인 삼박엘에프티㈜와 함께 고기능성 첨단소재 공장 증설 등 4500억원 규모 투자협약식을 가졌다. 협약식에는 김영록 전남지사와 이영준 롯데케미칼㈜ 첨단소재사업 대표, 윤성택 삼박엘에프티㈜ 대표, 허석 순천시장, 김경호 광양부시장, 송상락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롯데케미칼과 삼박엘에프티는 율촌제1산단에 자동차·전자기기 등에 사용하는 고기능성 첨단소재를 생산하는 공장 증설과 함께 수소 및 이차전지 소재 등 사업을 추진한다. 향후 500여 명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전망이다. 롯데케미칼㈜은 여수 국가산단 등 국내 5개 공장과 해외 26개 생산기지를 두고 연매출 12조원 이상의 실적을 꾸준히 올리는 우리나라 대표 석유화학 기업이다. 전남에 위치한 여수공장은 1600명의 인력을 고용하고 있으며, 기업 총매출액의 44%를 차지하는 연간 5조4000억원의 매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삼박엘에프티(주)는 충남 예산에 본사와 공장을 두고 있으며, 연간 900억원대 매출을 올리고 있다. 엘에프티(LFT)는 열가소성 장섬유 복합소재로, 탄소섬유와 플라스틱 등을 혼합해 만든다. 금속소재보다 가볍고 충격에 강해 자동차, 휴대폰 등의 부품 경량화 소재로 주목받고 있다.

김 지사는 "이번 협약이 코로나로 위축된 지역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고 지역 청년에게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히 광양만권에 고기능성 첨단소재 단지와 이차전지 소재부품 공급기지를 완성하고 그린수소 정주기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전남도의 비전을 실현하는데 큰 힘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도, 도민 함께하는 '탄소중립 주간' 운영

10일까지 실천문화 확산 캠페인

전남도는 6일부터 10일까지 22개 시·군과 각종 시민단체 등 도민이 함께 하는 '탄소중립 주간' 행사를 운영한다.

탄소중립주간은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선언(2020년 12월 10일)' 1주년을 맞아 '더 늦기 전에 2050 탄소중립'을 주제로 운영한다.

올해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사회 실현의 중요성과 절실함을 알리고, 탄소중립 생활을 실천하는 문화가 사회 전체로 확산하는 계기를 마련하는데 중점을 둔다.

이 기간 전남도는 시·군, 유관기관, 사회단체 등 모든 도민이 함께 참여하는 다양한 탄소중립 실천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한다. 주요 행사로는 모든 도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광고 등 불필요한 전자우편을 삭제해 정보 저장과정에서 생기는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불필요한 메일함 비우기(디지털 탄소 다이어트) 캠페인'을 전개한다.

또 전남도는 동절기를 맞아 전남기후환경네트워크와 함께 SNS 등을 활용한 '2050 탄소중립 온맵시 자랑 캠페인' 등을 펼쳐 탄소중립 홍보를 강화한다. 온맵시는 목도리, 내복, 장갑 등 따뜻한 옷차림을 통해 사무실 등 실내 난방온도를 낮춤으로써 이산화탄소 발생을 줄이는 활동으로, 한자어 온과 순우리말 맵시를 합친 신조어다.

이와 함께 지역민과 함께 도시 만들기 시민토론회, 청소년 탄소중립 도전 선언, 탄소중립 실천 다짐 및 그린터치 사용 선언식 등 다양한 행사를 비롯해 탄소중립 생활 인증 2050, 대중교통 및 출퇴근 버스 한 번 이상 타기, 탄소포인트제 및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가입 홍보 등 다양한 캠페인도 펼친다.

서은수 전남도 동부지역본부장은 "조금은 불편할 수 도 있지만 탄소중립은 도민 여러분의 작은 실천에서 시작한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탄소중립 실천 확산을 위하여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도립대, 미니채용박람회…20개 강소기업 현장면접

선배 합격 노하우 토크 등 인기 화순군민 평생직업교육도 운영

전남도립대가 대학일자리센터와 전남테크노파크 공동주관으로 최근 재학생과 졸업생, 지역 청년층을 대상으로 취업역량 강화와 취업난 극복을 위한 '미니채용박람회'를 개최했다. 〈사진〉

미니채용박람회에는 ㈜LCM에너지솔루션 등 지역 강소기업 20개 업체가 참여했다. 특히 현장 채용면접은 기업체 인사 담당자가 직접 면접을 통해 기업에 적합한 인재를 선발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취업 선배의 합격 노하우를 듣는 '선배를 잡(JOB)으면 취업이 보인다' 토크콘서트 등이 인기를 모았다.

또한 학생들의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컨설팅, 직무적성검사, AI 면접 및 이미지메이킹 상담 등 취업 준비를 위한 프로그램, 정부 청년고용정책과 청년고용지원사업 홍보도 이뤄졌다.

박병호 총장은 "이번 채용박람회가 취업난을 겪는 학생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학생의 취업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한편, 맞춤형 현장 중심 교육을 통해 취업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립대는 화순군민을 대상으로 지역주민 평생직업교육에도 나선다. 전남도립대 전남평생직업교육거점센터는 ▲핸드드립 마스터 자격 강좌 ▲나만의 홈카페 만들기 ▲나를 치유하는 힐링원예 등 3개 과정을 개설해 25일까지 평생교육을 운영한다.

핸드드립 커피 마스터 자격증 강좌는 자격증 취득을 위한 것이다. 3일부터 매주 화·목·금 화순 늘푸른작은도서관 북카페에서 진행한다.

나만의 홈카페 만들기는 핸드 드립 커피 기본 이론 교육과 실습으로 진행한다. 평일 시간을 내기 어려운 직장인을 위해 4일부터 매주 토요일 화순군 청춘들락 카페에서 진행한다. 나를 치유하는 힐링 원예 강좌는 식물을 이용한 치유농업 교육으로 매주 수·금 화순군 늘푸른작은도서관 북카페에서 진행한다.

안전한 평생교육 진행을 위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화순군민만 참여가 가능하다. 수강신청 시 백신접종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여순 특별법 후속조치 여론 수렴 공청회

전남도 주민·전문가 의견 수렴

전남도가 지난 3일 도민, 유족, 시민단체, 도의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여순사건 특별법) 후속조치 관련 공청회'를 열어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사건 발생 73년 만에 여·야 합의로 여순사건 특별법이 지난 6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돼 2022년 1월 21일 시행되면 그동안 통한의 세월을 보냈던 희생자와 유족이 억울함을 푸는 첫 발을 내딛게 된다.

이번 공청회에서 특별법 통과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특별법에서 시행령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주민과 관계 전문가가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전남도는 관계법령 및 위원회 운영 등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특별법 및 시행령 주요 내용, 시행령 의견 수렴 결과 및 시행조례(안)에 대한 내용과 함께 특별법 후속조치 추진사항을 설명했다. 여순사건위원회지원단은 위원회 운영 및 주요업무 등을 소개했다.

토론에서는 최관호 순천대 10·19연구소장이 주재하에, 이영일 여수지역사회연구소 이사장, 주철희 함께하는 남도학 소장, 박소정 여순10·19범국민연대 대표, 박미경 진실화해위원회 조사2과장, 양성주 제주4·3희생자유족회 사무처장이 발표자로 참여했다. 이들은 여순사건 특별법 시행령안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사항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박성태 여순사건유족협의회 상임대표는 "공청회에서 나온 지역민의 한과 설움이 중앙부처에 전달돼 정부정책에 잘 반영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손점식 전남도 자치행정국장은 "특별법 시행령, 시행조례안은 무엇보다도 주민, 관계 전문가 등 현장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며 "공청회에서 제시한 의견을 종합해 시행령안에 담을 사항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시행조례안에 대해서는 도의회와 협의해 주민들의 소중한 의견을 반영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 동부권 감염병 진단검사센터 건립 속도

설계 공모 당선 작품 선정 순천 해룡면에 2023년 완공

전남도보건환경연구원이 전남 동부권 감염병 진단검사센터 건립사업 설계공모 당선작으로 (주)로운 건축사사무소의 작품을 선정, 2023년 준공을 목표로 건립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번 건축설계 공모에선 총 4개 작품을 접수해 건축 분야 교수, 건축사 등 전문가로 구성한 심사위원의 심사를 거쳐 우수 작품을 선정했다.

심사 결과 (주)로운 건축사사무소가 알엔피건축사 사무소와 공동으로 출품한 작품을 선정했다. 생물안전3등급시설(BL3), 감염병 진단검사실 및 사무공간 등으로 구성한 내부 분리배치가 우수할 뿐 아니라, 동선을 자유롭게 이동하도록 설계했고, 주변 환경과 잘 어우러진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에따라 (주)로운 건축사사무소 등에 기본 및 실시설계권을 부여하고, 기타 입상작 3점에 대해서는 총 2364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며, 이같은 내용을 전남도 누리집과 건축행정시스템인 '세움터'에 게시했다.

전남 동부권 감염병 진단검사센터는 순천 해룡면 율촌제1산업단지에 생물안전3등급시설(BL3)로서, 감염병 진단검사실과 사무실 등 연면적 1782㎡ 지상 3층 규모로 건립할 예정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남도장터, GAP 경진대회 온라인 유통 금상

전남도의 농수축산물 대표 온라인 쇼핑몰 '남도장터'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에서 열린 '2021년 GAP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온라인 유통부문 최고상인 금상을 수상했다.

'농산물우수관리제도'를 뜻하는 GAP(Good Agricultural Practices)는 생산에서 판매까지 농산물의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소비자에게 안전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시행하는 국제적 규격제도다.

올해로 7회째인 이 경진대회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주최로 GAP 농산물을 홍보하고 우수사례를 전국적으로 알려 사회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개최하고 있다. GAP 농가와 유통업체, 학교를 대상으로 GAP 농산물 취급 노력, 성과, 발전방안 등의 항목을 평가해 시상한다.

남도장터는 2018년 1억6000만원에 불과하던 GAP 농산물 매출액이 지난 6월말까지 20억원으로 12배 이상 껑충 뛰었다. 타 온라인 쇼핑몰과 차별화한 GAP 특별관을 운영해 판촉을 유도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남도장터는 수상을 기념해 김장철 맞이 '2021년 김장기획전' 등 안전한 전남 농수축산물을 착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특별 할인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